

## 결 정

2018 - 1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 
광주매일신문 발행인 남 성 속

## 주 문

광주매일신문 2018년 1월 2일자 8면 「이낙연, 차기 대통령 적합도 '3위」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'주의' 조치한다.

## 이 유

1. 광주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『여론조사전문기관 '리서치뷰'가 지난해 12월 28-30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. 특히 영광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0%를 얻어 8%에 그친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3위로 수직 상승했다.

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적합도는 ▲안희정(21%) ▲이재명(18%) ▲이낙연(10%) ▲박원순(8%) ▲추미애(5%) ▲김부겸(4%) ▲송영길(2%) 순으로 나타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인 3%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(없음·기타 33%).

반면,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▲이재명(24%) ▲안희정(19%) ▲이낙연(16%) ▲박원순(12%) ▲추미애(7%) ▲김부겸(3%) ▲송영길(1%)순으로 집계돼 이 시장이 선두를 달렸다. 특히 서울에서는 ▲이낙연(17%) ▲안희정(16%) ▲이재명(14%) ▲박원순(9%)순으로, 이 총리가 안희정, 이재명을 누르고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려 주목된다. 이와 달리 호남에서는 ▲이재명(26%) ▲안희정(18%) ▲이낙연(11%) ▲추미애(8%)순으로 나타나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고향인 호남보다 서울에서 더 높았다.

야권의 차기 대통령적합도는 ▲유승민(18%) ▲황교안(10%) ▲홍준표(9%) ▲안철수(8%) ▲손학규(5%) ▲남경필(3%) ▲천정배(2%)순으로, 유승민 바른정당 대

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8%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(없음·기타 44%).

반면, 보수층에서는 ▲황교안(20%) ▲홍준표(19%) ▲유승민(15%) ▲안철수(9%) ▲손학규(3%) ▲남경필(2%) ▲천정배(1%)순으로 나타나 황 전 총리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%p차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(없음·기타 30%).

광역단체장 후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9%를 얻어 19%에 그친 한국당을 2.6배인 30%p 앞서며 강세를 이어갔다. 이어 ▲국민의당(6%) ▲바른정당(5%) ▲정의당(2%) 순이었다.

대부분 계층에서 선두를 기록한 민주당은 ▲서울(민주 48% vs 한국 18%) ▲경기·인천(54% vs 15%) ▲충청(52% vs 22%) ▲부산·울산·경남(46% vs 25%) ▲강원·제주(45% vs 14%)에서 한국당을 압도했고, ▲호남(민주 62% vs 국민 8%)에서는 국민의당을 54%p차로 크게 앞섰다.』

<http://www.kjdaily.com/article.php?aid=1514805759426843002>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광주매일신문은 리서치뷰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여론조사 중 차기 대통령 적합도 부분을 보도하면서 큰 제목을 「이낙연, 차기 대통령 적합도 ‘3위」로 달았다. 이낙연 총리가 다음 대통령 후보군 중 적합도 3위라는 뜻이다.

그러나 리서치뷰의 ‘차기 대통령적합도’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으로 나뉘어 실시한 것이며, 이 총리는 전체 후보군 중 3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적합도 3위다. 기사 본문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으로 나뉘어 기술했다. 따라서 위 제목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.

광주매일신문은 또 기사 본문에서 적합도가 오차범위 이내여서 순위가 가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 『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』 『이 총리가 안희정, 이재명을 누르고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려 주목된다』 등으로 기술했다.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±2.8%p이다.

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. 이 같은 기사는 ‘신문윤리강령’과 ‘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’을 위반하는 것이며,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,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「보도와 평론」,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

준칙」 전문,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,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 「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」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**신문윤리강령 제4조 「보도와 평론」**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, 객관적으로,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.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,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.

**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** 보도기사(해설기사 포함)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. 또한 기사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·보도해야 한다.

**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**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
**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(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)**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.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“경합” 또는 “오차범위 내에 있다”고 보도한다. ③위 경우 “오차범위 내에서 1, 2위를 차지했다”거나 “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”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.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.